

대장부는

마땅히 응비*해야 할 것이다.

어찌 가만히 옆드려 있을 수 있는가?

* 기운차고 용기있게 활동함.

- 후한서 -

금오공대 VOL 176 소식

창조적인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특수목적 국립공과대학교로서
국가와 인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39177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 T_054.478.7114 / F_054.478.7100 / <http://www.kumoh.ac.kr>



CONTENTS⁺ 176

04 Focus

국제공학교육관,
전액 국비로 건립 확정

06 Issue

대한민국 인재상, 2명 선정
창업 교육 비율 최우수
201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융합형프로메카트로닉스인력양성사업단,
우수학과 2회 연속 선정
K-JOB 119, 진로교육 우수사례 선정

12 People

美, ARISS 2016, 우수기술상
상상설계대전, 엔지니어리더상
임베디드소프트웨어경진대회 우수상
제3회 동교상 금상
대학생 CM 경진대회 최우수상
대학생 정밀공학 창의 경진대회 최우수상
제1회 챌린지볼 우승
우수 SCI 학술지 잇따라 게재
주백석 교수 연구팀 최우수 논문상 선정
ISASC 2016, 최우수 발표상

19 People 교수

박노진 교수, 교수회장 재선출
홍성욱 교수, 현송공학상 수상
김동성 교수, 美 컴퓨터학회 시니어회원 선정

20 Together Kumoh

금오공대 가족회사,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표창
금오공대 입주기업 (주)스테크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2016 토목인날' 행사 개최

22 kit News

학생-기업 CEO, 멘토·멘티 결연
C-Idea 2016 개최
산업인턴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G-Star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열려
2016 산업협력 성과 보고회 개최
메카트로닉스 콘서트 개최
국제산업 IT융합기술 워크숍 개최
제5차 LINC 사업성과 보고회 개최
日, 도호쿠대학과 협력, 국제 심포지엄 개최
美, 오션아이티와 업무협약 체결
中, LCD 전문기업 디자인과 MOU 업무협약 체결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이전 협약 체결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협약식 열려
학생작품 기술이전 협약 체결
주영섭 중기청장 초청 특강 개최
31회 산학연관 포럼 개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초청 강연

33 Giving to Kumoh

사랑의 감장 전달
지역사회 나눔 실천

34 Galleria

'현대미술작가 단체展' 개최
'김석영 초대展' 개최

37 kit Love 발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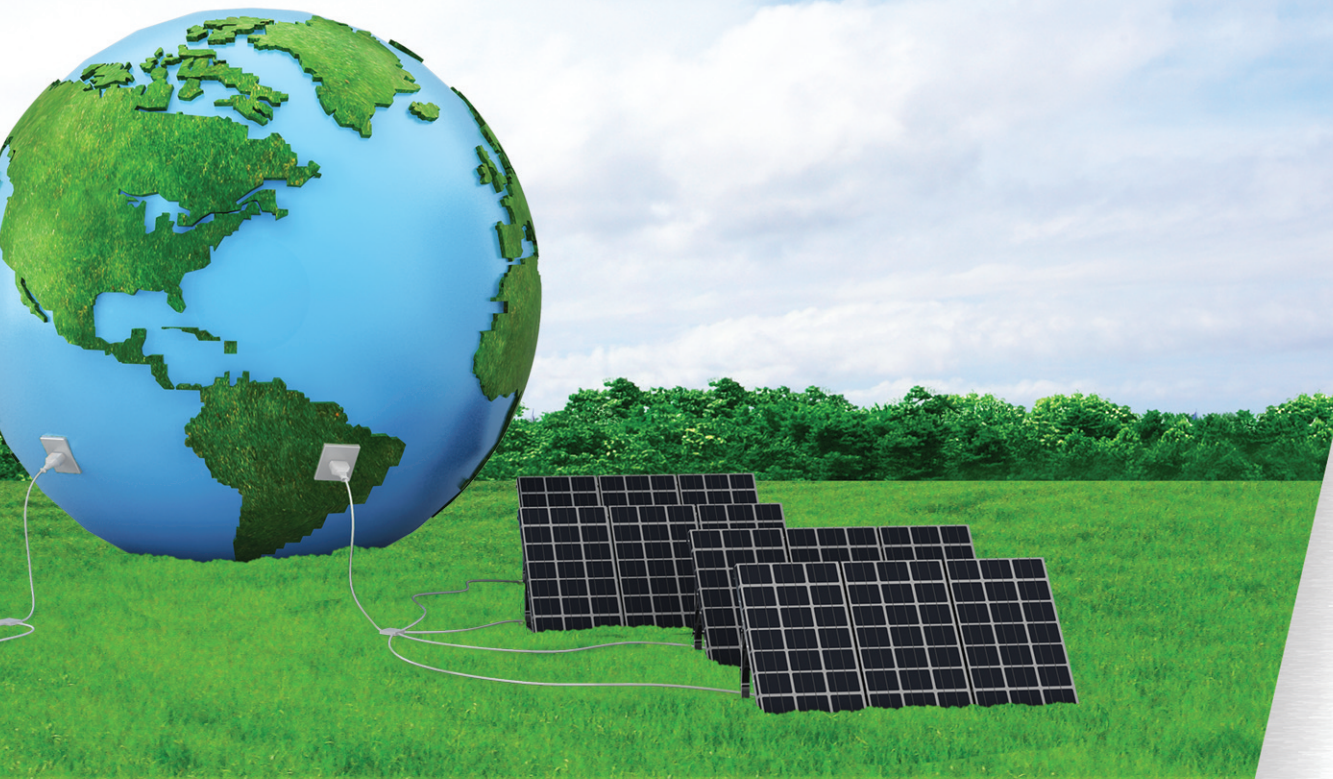
"금오공대발전기금 후원의 집을 소개합니다."
01 금오기전(주), 발전기금 1천만 원 전달
02 베스트자동차, 발전기금 1,200만 원 금오공대 전달
03 지역 미니클러스터, 금오공대 장학금 전달
04 '동문·기업' 발전기금 2천만 원 전달 받아

41 kit Love 약정서

43 kit Love 기탁하신 분

금오공대 ‘국제공학교육관’ 전액 국비로 건립 확정

국비 110억7천9백만 원 확보



국 제 공 학 교 육 관 국 비 확 보

교육부 심의초 통과, 기재부 예산편성 확정 ‘태양광신재생에너지사업’ 국비 15억 원도 확보

금오공과대학교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공학교육관 신축 사업’을 전액 국비로 건립하기로 확정했다. 금오공대는 1월 4일, “전체 사업에 필요한 국비 110억7천9백만 원이 교육부 심의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제공학교육관은 ‘18년 착공해 ‘19년 준공 예정으로 연면적 5,000㎡에 강의실, 멀티미디어실, 영상회의실, 컨벤션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제공학교육관이 건립되면 외국어 교육 전용 강의실 및 연구 공간 확보로 글로벌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전용 강의실 확보로 국제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문화 이해를 위한 외국 학생들의 문화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앞서 금오공대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하며 이를 위한 국비 15억 원도 확보했다. 태양광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친환경 그린캠퍼스 구현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4월 중 사업 시행에 들어가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금오공대는 국제공학교육관과 태양광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25억7천만 원을 확보하여 대학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오공대는 지난해 1월, 108억9천2백만 원의 국비 포함, 총 사업비 136억1천6백만 원(구미시 4억5천만 원, 경상북도 4억5천만 원 지원, 대학 자부담 18억2천4백만 원)이 투입되는 ‘산학기술창조관’ 기공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산학기술창조관은 연면적 8,237㎡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되며, 산학협력단, 기업부설 연구소, 국책사업단, 학생 창업동아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12, ‘14, ‘15년 이어 ‘4번째 인재상’ 쾌거 ‘2016 대한민국 인재상’ 2명 선정

발명 · 창업 특화 인재, 창의 · 인성 교육 ‘결실’

금오공과대학교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인재상’에 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강병규(25 · 전자공학부 졸업), 정동근 학생(23 · 기계공학과 4년)이 그 주인공으로, 두 학생은 발명 · 창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두각을 보이며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로써 금오공대는 2012년 하재상(전자공학부 졸업), 2014년 최현진(소재디자인공학과 졸업), 2015년 이상욱(기계시스템공학과 4년)씨에 이어 두 명의 인재를 다시 한 번 배출하게 됐다.

강병규 씨는 창조경제 新 가치창출 아이디어 콘테스트 대상(2015)을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우수상(2015),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UL산업안전상(2015) 등을 수상하며 지능로봇에 대해 강점을 보였으며, 소화탄을 발사할 수 있는 ‘화재 진압 드론’으로 특허도 출원(2014)했다.

정동근 학생은 금오공대 발명 · 창업동아리인 ‘거북선신화’에서 활동하며 이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다. 제15회 대학생 경제 유니버시아드 대회 예코제품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2013)을 비롯해 서울국제발명전시회 2관왕(2014), 말레이시아 국제발명 · 혁신 · 기술 전시회 은상 및 세계발명지적재산권협회 특별상(2016), 발명유공자 포상(2016) 등을 수상했으며, 총 7건의 특허를 출원 등록했다.

정동근 학생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공감을 얻는 발명품을 만들고 싶다”며, “발명에 관심 있는 학

생들에게 교육봉사 및 관련 활동을 적극 펼쳐 발명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 졸업 후, 현재 철도기술연구원 파트타임 석사과정에 있는 강병규씨는 “학부 동아리 활동 당시 접했던 드론 개발의 배터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전자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며, “수상을 계기로 관련 연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오공대는 참 · 든 · 난 · 큰사람의 인재상에 어울리는 인재양성을 위해 창의, 인성, 체험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내 창업진흥센터와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의 및 발명 활동에 필요한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시제품 제작, 발명 · 창의 대회 출전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인재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미래 창의 · 융합적 인재를 발굴 및 격려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2001년부터 매년 선발하고 있다. 대학부 40명, 고등부 50명, 청년일반인 10명 등 총 100명이 올해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금오공대 2명, 포항공대 2명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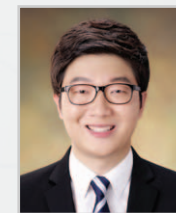
전자공학부
정동근 학생
2016 인재상



기계공학과
강병규 졸업생
2016 인재상



기계시스템공학과
이상욱 학생
2015 인재상



소재디자인공학과
최현진 졸업생
2014 인재상





금오공대, 창업 교육 비율 '최우수'

'16 중앙일보 평가 결과, '권역별 우수 교육 중심대학'
“창의인재 양성 위한 정책지원 성과”

금오공과대학교가 '2016년도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창업교육 비율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금오공대는 '공학계열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의 양 부문을 평가하는 다양한 항목 가운데 창업교육 비율이 평가 참여 대학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공학계열 대학' 부분에서 창업교육 참여율도 28.8%로 4위로 선정됐으며, 특히 '교육중심 대학' 부분에서는 유지취업을 2위에 올라 취업의 질적 수준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경북권에서 2개 대학만이 포함된 '권역별 우수 교육중심대학'으로도 선정됐다.

금오공대는 산학중심 창의인재양성 특성화 대학을 목표로 도약하는 금오공대의 높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다양한 지표 분석을 통해 학생 지원 및 교수연구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역별 우수 교육중심대학 ※가나다순

구분	우수대학
서울·수도권	가톨릭대·경기대·국민대·상명대(서울)·숙명여대·한국산업기술대
부산·경남권	동명대·울산대·창원대·한국해양대
대구·경북권	금오공대·동국대(경주)
대전·충청권	건양대·선문대·순천향대·코리아텍
전라권	전주대

※교육중심대학 평가는 대학의 목표를 연구보다 교육이라고 응답한 33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종합·계열평가와 달리 논문 등 교수연구 지표는 미반영

중앙일보 제공

'201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공동실험실습관 '열분석실' 선정, 국립대 중 2번째
“안전문화 확산, 교육의 질 향상” 기대

금오공과대학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해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립대학 중 2번째로 인증 받은 금오공대 공동실험실습관(관장 김태오)의 열분석 실험실은 29개 항목의 안전평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통과했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 발굴, 확산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인증 평가는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12개 항목)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수준(13개 항목)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도(4개 항목) 등 3개 분야에서 29개 항목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친다. 올해는 금오공대를 포함해 대학, 연구기관 등 37개 기관이 선정됐다.

한편, 금오공대는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3월부터 전담부서인 안전팀을 별도로 신설, 운영 중에 있다.

융합형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 우수학과 2회 연속 선정

2014년 이어 2회 연속 선정, 추가 인센티브 확보



특성화 사업비 10억 원과 우수학과 사업비 2억7천5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지원금은 전공역량과 외국어능력, 취업역량 강화 등 학부생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융합형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기계시스템공학과)은 2015 대학민국 인재상을 배출한 바 있으며, 올해 현대 IHL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을 비롯해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특성화 사업 지원의 결실을 맺고 있다.

융합형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단장 신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6년 10월 29일 발표한 '특성화 우수학과'에 2014년에 이어 연속 선정됐다.

'특성화 우수학과'는 교육부가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 학과를 육성하기 위해 시행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단 가운데 상위 30% 대학에 한해 지정됐다.

2014년 특성화 사업과 우수학과 사업을 함께 진행한 융합형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은 중간평가에서 △교육만족도 개선 △학생역량 강화 △지역산업 기여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특히 우수학과 가운데서도 최상위 평가를 받아 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받게 됐다.

사업단은 특성화 우수학과로 재선정됨에 따라 2016~2018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 K-JOB 119

대학 진로교육 우수사례 선정

금오공과대학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시행하는 '2016 대학진로교육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내용은 금오공대 취업지원본부에서 주관하는 'K(Kumoh)-JOB 119 찾아가는 취업지도 사업'으로, 책자발간을 통해 전국 대학교에 소개될 예정이다.

'K-JOB 119 찾아가는 취업지도'는 취업 성공을 위해 대학생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능

동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취업 및 진로에 대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채용시장 동향과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길러 학생 만족도와 취업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취업 전담 직원이 직접 학부(과)별로 취업 지도를 진행하며,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취업동향 및 취업 성공 전략 등을 알려주고 있다.

금오공대는 찾아가는 취업지도 프로그램이 학생 만족도 향상, 교육효과 확대, 예산 절감, 취업률 향상

의 1석 4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희 금오공대 취업지원본부장은 "K-JOB 119 사업의 성공요인은 수요자인 학생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통해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취업 경쟁력을 스스로 길러준 점이 우수사례 선정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취업지도 사업, 학생만족도, 예산절감 등 효과

K-JOB 119 사업은 IMF사태 이후 심각한 대졸 취업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금오공대가 신규 발굴한 자체 사업이다.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8회 시행했고, 1,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금오공대는 2014년 취업률 기준으로 10년 연속 '다'그룹 취업률 우수대학, 전국대학 취업률 21위(186개 대학 기준), 전국 국·공립대학 취업률 3위(32개)의 우수한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ARLISS 2016’ 대회서
‘우수기술상’ 수상

‘우수기술상’

기계시스템공학과 김설하 학생 등 5명 영예 ‘융합형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 지원 성과

※ PID 제어(Proportional-Integral-Derivative control) : 제어 변수와 기준 입력 사이의 오차에 근거하여 계통의 출력이 기준 전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피드백 제어의 일종

금오공과대학교 학생들이 미국 캔 위성 대회인 ‘ARLISS 2016’ 대회에서 우수기술상(Technology Award)을 수상했다.

팀명 ‘IRL’로 참가한 김설하(22·3년), 채효빈(25·3년), 이석호(25·3년), 이청화(26·4년), 하창근(26·4년) 학생은 지난해 9월 미국 네바다주 블랙 록 사막(Black Rock Desert)에서 열린 ARLISS 2016에 출전해, ‘Comeback Competition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ARLISS(A Rocket Launch for International Student Satellites)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초소형 위성을 발사한 후, 분리된 캔 위성을 목표 지점까지 돌아오게 하는 경연이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우주시스템 개발 프로그램과 기타 교육기관 및 미국 아마추어 로켓그룹(AEROpAC)이 시행하는 대회다. 올해는 자체 제작한 드론 및 이동로봇을 ARLISS 로켓 그룹에서 제공한 로켓 발사체에 탑재하여 12,000ft까지 발사한 후 GPS를 이

용하여 목적지에 가깝게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오공대 학생들은 쿼드콥터 타입의 드론을 자체 제작하여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자율경로 탐색 및 이동 기능이 탑재된 드론은 날개가 펼쳐지면서 장착되어 있는 스위치가 작동되고, GPS 및 기타 센서가 복합 작용해 비행하게 된다. 특히 드론의 자세와 고도, 위치를 PID 제어*로 분석하여 안정화시킨 점이 주목받았다.

팀장을 맡은 김설하 학생은 “이번 대회를 통해 로봇 연구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대회 준비를 함께 한 팀원들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주백석 교수님, 융합형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계시스템공학과 주백석 지도교수는 “이번 수상은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의 소중한 결과”라며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오공대 기계시스템공학과 융합형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은 교육부 선정 대학특성화 사업을 통해 공모전, 경진대회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제4회 상상설계대전 ‘엔지니어리더賞’ 수상

김재민·정성욱·장지호 학생, ‘상상설계대전’ 당선
‘해양생태 보호 시스템’ 호평

금오공과대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양일간 열린 ‘제4회 상상설계대전’ 공모전에서 ‘엔지니어리더賞’을 수상했다.

김재민(26·기계설계 4년), 정성욱(25·기계설계 4년), 장지호(25·산업경영 4년) 학생으로 이루어진 ‘TIP(Technology In Potential)’ 팀(팀장 김재민)이 주인공으로 ‘해양생태 보호 시스템’을 주제로 이번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금오공대 TIP팀은 학생들이 제안한 해양생태 보호 시스템은 대형 선박사고로 기름 유출사고와 재난 발생 시, 특정 주파수를 발사해 해당 해역에 해양생물들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 양식장, 해수욕장 등 인간의 생활 영역에 상어, 해파리 등 유해 생물의 접근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TIP팀은 이 같은 점에 착안해 해양수질 오염에 대응한 융·복합기술을 제안하여 미래성과 창의성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정성욱 학생은 “창업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팀원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안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평소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미술 전시회와 클래식 강연과 같은 문화체험이 창의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금오공대 창업동아리 TIP 학생들은 제14회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금상을 비롯해, 제2회 경북 창업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은상, 2016 대학창업 유망팀 300 선정 등 탁월한 재능과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김재민 학생은 지난해 제3회 상상설계대전에서도 미래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 14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삼성전자 부문 우수상 수상

금오공과대학교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제 14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삼성전자 부문 Wearable 디바이스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금오공과대학교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김동성 센터장)와 공학교육혁신센터(이용환 소장)에서 지원한 마음의 소리 팀(차중혁 외 4명)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마음의 소리 팀은 갤럭시 기어와 스마트 폰의 연동을 통해 스마트폰의 음성인식기능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비청각장애인이 말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청각장애인과 비청각장애인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작품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임베디드 소

프트웨어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개발아이디어를 위해 2003년부터 매년 대회를 주최해 이번에 14회를 맞이하였다.

금오공과대학교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는 2014년부터 BK+21스마트IoT창의인재사업단 및 kit융합기술원, 금오공대 IT융복합학과 등과 함께 학생들의 융복합연구 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좌측 3번째 금오공과대학교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차중혁 중앙 삼성전자 우홍욱 수석, 나머지 인원은 타학교 인원

금오공대 이상욱 학생, 제3회 동교賞 ‘금상’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창의·발명 확산 기여
“지식과 재능 살려 국가발전에 노력”



서 금상을 수상했다.

장학법인 (재)수림재단에서 주최하는 동교상은 재단 설립 자이며, 중앙대 이사장을 역임한 고 동교(東喬) 김희수 전 이사장의 교육이념을 받들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교상은 대학 재학 중의 업적을 통해 청년들의 귀감이 되고, 사회의 등불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재를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아 시상하고 있다. 수림재단은 83명의 후보

기 계 시 스
템 공 학 과
이 상 욱
(28·4년)
학생이 제
3회 동교
상 시상식에

자를 추천받아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총 8명이 선정됐다. 이상욱 학생은 태국발명전시회 금상, 은상을 비롯해, 최근 중국국제발명전시회에서 3관왕을 수상했다. 특히 201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명예를 드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상욱 학생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창의적 재능을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생 CM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전국대학생 건설사업관리(CM) 경진대회’에서 금오공대 건축학부 학생들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4학년, 정한봉, 김보라, 3학년 황소정, 건축학전공 3학년 김효은 학생이다. 이번 대회는 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분야 최고 권위인 ‘무영CM 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온정권)’ 주최로 열렸으며, 프리젠테이션 능력과 건축 사업 분석 및 기획력이 뛰어난 학생에게 주어지는 ‘CM 챔피언상’까지 팀원 전체가 공동 수상해 그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학생 CM경진대회는 건설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글로벌 건설 프로젝트 기반 실무지식 및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건설기반의 미래지식과 미래기술 등의 학습 및 공유 등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수상은 건축공학 및 건축학 전공 간 융합 교육의 성과로 향후 건축학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와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동기부여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6 KSPE 제1회 대학생 정밀공학 창의 경진대회 최우수



금오공대 기계시스템공학과 지능로봇시스템 연구팀(팀장: 이철화, 팀원: 방지환, 하창근, Keanu Edwardson, 지도교수: 주백석)이 ‘2016 KSPE 제1회 대학생 정밀공학 창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능로봇시스템 연구팀은 ‘전방향 이동형 자가 평형 로봇(Omni-Directional Self-Balancing Robot)’이라는 볼-봇 타입의 이송용 세그웨이 로봇으로 이와 같은 성적을 거뒀다. ‘볼-봇’은 공과 같은 모양을 가진 로봇이나 공을 바퀴로 사용하는 로봇을 지칭한다. 현재 여러 형태와 기능을 가진 볼-봇이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최소한의 공간만을 점유하며 일반 바퀴

를 사용하는 로봇보다 운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연구실에서 도전하는 분야가 됐다.

연구팀은 학부생으로서 제작하기 어려운 로봇을 만들고, 사람이 탈 수 있는 이송용 세그웨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새롭게 제안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결과를 받게 됐다.

주백석 교수는 “대학 특성화 사업단인 융합형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의 지원을 비롯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로봇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우수한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회 대학생 정밀공학 창의 경진대회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렸다.



금오공대, 제1회 챌린지볼 ‘우승’

미식축구부 ‘골드레이브스’, 전국 결승전 성과

금오공대 미식축구부 ‘골드레이브스’가 ‘제1회 챌린지볼(2016 전국 대학미식축구선수권)’에서 우승했다. 2016년 11월 19일 대구한의대 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금오공대는 연세대학교와 경기를 펼쳐 20대 18로 승리했다.

제1회 챌린지볼(대학 2부 리그)은 2016년 새로 도입됐으며, 3개 지역(서울미식축구협회, 대구-경북미식축구협회, 부산-경남미식축구협회) 대회 2부 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들이 겨루는 전국대회 결승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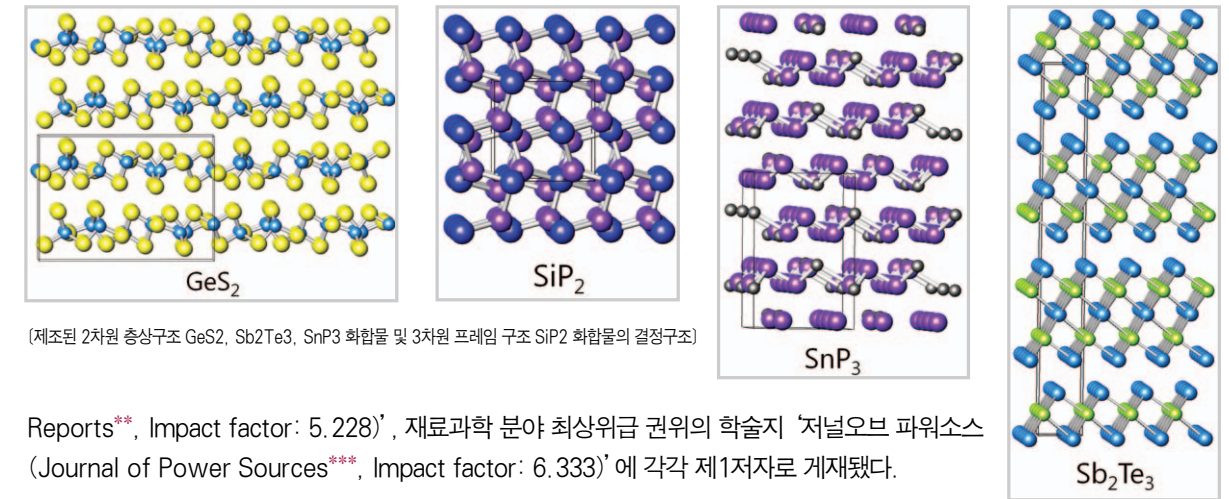
금오공대 석사과정 대학원생, ‘우수 SCI 학술지’ 잇따라 게재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의 연구결과가 권위 있는 SCI 학술지에 제1저자로 연달아 게재돼 화제가 되고 있다.

금오공대 신소재공학부 전지신소재연구실(지도교수 박철민)의 성건규(27) 학생은 2차원 층상구조를 갖는 게르마늄-황 화합물(GeS₂)을 제조해 이를 고용량 리튬 이온 이차전지에 적용하는데 성공했다. 이 연구는 신소재 분야 최상위급 SCI 학술지인 ‘AC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 인터페이스(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Impact factor: 7.145)’의 온라인판 10월호에 제1저자로 게재됐다.

남기훈 학생(27)은 2차원 층상구조를 갖는 안티몬-텔루륨 화합물(Sb₂Te₃)의 제조 및 고용량 리튬 이온 이차전지의 적용 연구에 성공했다. 이 연구도 에너지소재 분야 최상위급 SCI 학술지로 평가받는 ‘저널오브 머티리얼즈 케미스트리 A(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Impact factor: 8.262)’에 게재됐다.

권혁태(29), 박민구(30), 박재완(29) 학생의 경우, 석사 과정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노 및 에너지소재 분야 최상위급 SCI 학술지인 ‘ACS 나노(ACS Nano^{*}, Impact factor: 13.334)’, 융합과 학분야 최상위급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Impact factor: 5.228)’ , 재료과학 분야 최상위급 권위의 학술지 ‘저널오브 파워소스 (Journal of Power Sources^{***}, Impact factor: 6.333)’에 각각 제1저자로 게재됐다.

권혁태 학생은 3차원 프레임 구조를 갖는 실리콘-인화물(SiP₂) 제조와 이를 고용량 리튬이온 이차전지에 적용하는 연구에 성공했고, 박민구 학생은 아연산화물(ZnO)을 이용하여 리튬 이온의 삽입 및 탈리시 반응메커니즘을 명확히 밝혀냈다. 이 연구는 이차전지 분야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박재완 학생은 2차원 층상 구조를 갖는 주석-인화물(SnP₃)의 제조에 성공하여 리튬이온 이차전지 음극소재의 적용에 성공했다. 이러한 2차원 층상구조 및 3차원 프레임구조의 화합물 소재들은 이차전지의 전극소재 뿐만 아니라, 화합물 반도체로서 다양한 전자소자의 소재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도교수인 박철민 교수는 “지방대의 열악한 연구 환경에도 불구하고, 석사과정 학생들의 연구가 우수 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며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정신 및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등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량 리튬 이온 이차전지
전극소재 개발 관련
신소재공학부 전지신소재연구실
성건규 학생 등 5명

^{*}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誌

: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출간하는 신소재 분야 최상위급 국제학술지(피인용지수: 7.145, 신소재 분야 상위 10%, 2015년 기준)

◇ 논문제목: “Highly reversible and superior Li-storage characteristics of layered GeS₂ and its amorphous composites”: 온라인판 10월호 게재

^{*}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誌

: 영국 왕립화학회(Royal Society Chemistry)에서 출간하는 재료과학 분야 최상위급 국제학술지(피인용지수: 8.262, 에너지소재 분야 상위 5%, 2015년 기준)

◇ 논문제목: “Layered Sb₂Te₃ and its nanocomposite: A new and outstanding electrode material for superior rechargeable Li-ion batteries” 7월호



성건규 학생



남기훈 학생



박재완 학생



권혁태 학생



박민구 학생

고용량 리튬 이온 이차전지의
적용 연구

게르마늄-황
화합물(GeS₂)
을 제조

‘AC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 인터페이스(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Impact factor: 7.145)’

안티몬-텔루륨
화합물(Sb₂Te₃)
의 제조

‘저널오브 머티리얼즈 케미스트리 A(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Impact factor: 8.262)’에 게재

^{*}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誌

: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출간하는 나노 및 에너지소재 분야 최상위급 국제학술지(피인용지수: 13.334, 나노소재 분야 상위 3%, 2015년 기준)

◇ 논문제목: “Silicon diphosphide: A Si-based three-dimensional crystalline framework as a high-performance Li-ion battery anode” 7월호

^{**} Scientific Reports 誌

: 네이처(Nature)에서 출간하는 융합과학분야 최상위급 국제학술지(피인용지수: 5.228, 융합과학 분야 상위 11%, 2015년 기준)

◇ 논문제목: “Electrochemical Li topotactic reaction in layered SnP₃ for superior Li-ion batteries” 온라인판 10월 24일자

^{***} Journal of Power Sources 誌

: 엘세비어(Elsevier)에서 출간하는 재료 및 전기화학 분야 최상위급 국제학술지(피인용지수: 6.333, 전기화학 분야 상위 7%, 2015년 기준)

◇ 논문제목: “Partially reversible Li₂O formation in ZnO: A critical finding supporting realization of highly reversible metal oxide electrodes” 10월호

주백석 교수 연구팀 최우수 논문상 수상

한국정밀공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서 수상

기계시스템공학과 주백석 교수, 장재호 대학원생 수상



기계시스템공학과 주백석 교수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장재호 학생이 '2016 한국정밀공학회 춘계학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주백석 교수와 장재호 학생은 '건물 외벽 장애물 승월 매커니즘 설계에 관한 하중분석' 관련 연구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유리창 청소로봇이 건물 외벽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다. 주 교수 연구팀은 장애물 승월 기능을 갖는 유리창 청소로봇의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판로확장 및 새로운 투자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주백석 교수 연구팀은 (주)현진제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종이컵 성형기의 고장진단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하고 있으며,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장재호 학생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여 매우 기쁘고 도와주신 주백석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더욱 열심히 정진하여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밀공학회는 정밀 기계 및 가공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 학회로, 이번 춘계대회에는

약 95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시상식은 한국정밀공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렸다.



신소재공학과 대학원생, "ISASC 2016" 최우수 발표상 수상



신소재공학과 기능재료연구실의 박의근 박사과정 대학원생(지도교수 이현권)의 논문이 "ISASC 2016"에서 'Outstanding Presentation Award'를 수상했다. 논문 제목은 "Plasma Resistant YAS(Y2O3-Al2O3-SiO2) Coated Ceramics"로, 교신저자는 이현권 교수(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다.

ISASC 2016은 한국세라믹학회에서 주최하고 미국·일본·유럽·중국세라믹학회 지원으로 열린 국제학술대회로 'International Symposium on new frontier of Advanced Si-based Ceramics and Composites'의 약

자다. 박의근 학생의 논문관련 기술은 기술 사업화와 관련해 특허출원 준비 중에 있으며, 기본 성능 테스트를 거쳐 글로벌 및 국내 반도체공정 장비 제조사의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기존 상용화되고 있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건식 식각공정에 사용되는 내플라즈마성 소재인 고가의 Y2O3를 저가의 개발소재로 대체하고, 복잡한 제조공정을 단순화시킨 코팅기술의 첫 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코팅기술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의근 대학원생은 지난 "2016년도 한국재료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도 관련 기술 주제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키우는 힘, 파워 교수진

신소재공학부 박노진 교수 교수회장, 재선출



임시총회서 만장일치 추대
"교수회와 대학 발전에 최선"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회장 박노진)는 지난해 12월 7일 임시총회에서 박노진 현 교수회장을 15대 교수회장으로 재선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금오공대 교수회는 박노진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하고 교수의 권익 증진과 대학 발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노진 교수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교수회장을 다시 맡

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교수회 발전과 대학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진 교수회장(신소재공학부 교수)은 성균관대 금속공학과 졸업 후 독일 클라우스탈공과대학교에서 금속재료공학분야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5년 2월부터 금오공대에 재직하고 있다.

한편, 15대 교수회장 임기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다.

기계시스템공학과 홍성욱 교수 '현송공학상' 수상

'기계공학 발전' 기여 공로
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 봉사활동 등 노력

홍성욱 교수(기계시스템공학과)가 제15회 현송공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송공학상은 현송교육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기계부문과 금속재료부문으로 나뉘며, 홍교수는 기계공학부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기계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1991년 3월부터 금오공대 기계계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홍 교수는 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 봉사활동 등을 아우르며

교육자로서 모범이 되어왔다. 대학과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스승의 날에는 교육유공 근정포장을 수훈 받은 바 있다.

한편, 현송공학상은 평생을 철강산업에 헌신한 고 주창균 동부제강 창업주가 설립한 '현송문화재단'이 한국정밀공학회의 추천을 받아, 기계공학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학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전자공학부 김동성 교수 美 컴퓨터 학회 시니어 회원 선정



김동성 교수(전자공학부 전자IT융합전공)가 미국 컴퓨터 학회(ACM) 시니어 회원으로 선정됐다.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은 1947년 설립됐으며, 세계 최초로 컴퓨터 분야의 학술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다. 미국 뉴욕 시에 본부가 있으며, 김동성 교수는 2001년부터 시작한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 및 통신망 분야의 활동으로 ACM 시니어 회원으로 선정됐다.

미국전기전자협회(IEEE) 시니어 회원이기도 한 김 교수는 민군 융·복합 분야 산학연계 활동으로 12월 7일 '2016 K-ICT 융합 기업인상'을 수상했으며, 국방부 정보화책임관(CIO)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됐다. 국방부 CIO 자문위원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로, 국방 분야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금오공대 가족회사,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표창

(주)카보랩, 기업부문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금오공대 산학융합연구마을 입주, 기술 혁신 강화”

금오공과대학교 가족회사인 (주)카보랩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했다.

기업부문 중소기업청장을 수상한 (주)카보랩(대표이사 김우석)은 산업용 소재 및 탄소복합 재료를 기반으로 세라믹, 금속, 복합재료를 응용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연구기반 소재 전문기업으로, 현재 ‘금오공대 산학융합연구마을’에 입주하여 금오공대가 보유한 인프라

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금오공대는 앞서 2012년 박상희(기계공학과)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2013년 노재승(신소재공학부)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이종찬(기계공학과) 교수가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기업부문에서 (주)원바이오젠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금오공대 입주기업 (주)선테크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제16회 대구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 세계최초 OPAS 개발 ‘수출 200만 달러 달성’

금오공과대학교입주기업 (주)선테크가 ‘제16회 대구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했다.



2013년 10월, 금오공대 창업 창업진흥센터에 입주한 (주)선테크(대표 한병삼)는 중소 벤

처기업으로 전자기반의 의료장비 개발 및 제조업체다. 세계 최초로 ‘수면성 호흡장애 진단을 위한 영상분석 시스템(OPAS)’을 개발했으며, ‘전자자동 컨트롤러’ 등을 제조해

올해 12월 2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특히 OPAS는 수면 호흡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과 위치를 찾아 치료방법을 선정해 주는 의료 장비로 세계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선테크는 그동안 금오공대 LINC사업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등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 및 지원을 바탕으로, 불황 속에서도 2013년 1억7천5백만 원 매출을 시작으로 올 연말에는 3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대 금오공대 창업진흥센터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지역 기업과 상호 공유하고 있다”며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벤처기업 육성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16 토목인날’ 행사 개최

토목공학과 총동문회(회장 김대환)가 10월 15~16일 양일간 ‘2016 금오공과대학교 토목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구미 컨트리클럽, 양호동 및 신평동 대학 캠퍼스, 금오산호텔 등에서 진행됐다.

토목공학과 총동문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2016 토목인의 날은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86학번 입학 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토목인의 날 본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5년째 이어오고 있는 골프대회는 선·후배 동문과 가족의 참여로 친목 도모와 우의를 다졌고, 86학번 홈커밍데이는 신평동 및 양호동 캠퍼스를 방문하여 옛 추억과 변화된 모교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홈커밍데이는 토목공학과 1기 83학번부터 시작해 2013년 이후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마지막 행사로 이루어진 토목공학과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및 토목인의 날 본 행사는 금오산호텔 컨벤션센터에서 300여명의 동문 및 가족,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대환(86학번)동문은 “동문들의 정성으로 이룬 성과가 빛날 수 있도록 모교 발전 및 총동문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취임식 이어서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이종화(89학번)동문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었으며, 86학번 동기회에서 토목공학과 총동문회 발전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토목공학과 학생회실 리모델링비 200만원 지원을 통해 후배사랑을 실천했다.

‘2016 토목인의 날’에 참석한 동문들은 단합된 마음을 확인하고 재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우애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 준비 주관 기수인 92학번 김인수 동문은 “선·후배 동문들과 은사님 그리고 재학생들과의 유대를 더욱 더 깊게 한 시간이 되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오공대, 학생-기업CEO간 멘토·멘티 결연

금오공대 LINC사업단 주최, 5년째 이어져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 노력 '결실'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기업체 CEO, 1:1 멘토·멘티 결연' 행사가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렸다.

금오공대 LINC 사업단(단장 채석)과 (사)대구경북 성공CEO포럼(회장 구성득)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5년째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440명의 멘토·멘티가 이어졌으며, 올해는 금오공대 김종표 학생(신소재공학부·4년)과 메가캠코리아 최희식 대표를 비롯한 78쌍 156명이 멘토·멘티 결연을 맺었다. 학생들은 취업 지도, 현장실습·기업연계 캡스톤 디자인 등의 현장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멘토로 나선 메가캠코리아 최희식 대표는 “인생 선배로서 들려주는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 후 현장 적응력을 높여 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표 학생은 “취업과 창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LINC사업단 채석 단장은 “멘토 멘티 결연을 맺은 참여 학생들이 다양한 기업으로 취업되는 등 가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포스트 링크사업에서도 이러한 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오공대, 'C-Idea EXPO 2016' 개최

LINC사업단 주최, 학생 아이디어 작품
상품화 추진
'한·중·일 글로벌 산학교류' 확대

창조경제 실현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C(Creative)-Idea EXPO 2016' 행사가 11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금오공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금오공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단장 채석)과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이용환),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권기용), 구미전자정보기술원(원장 차종범), 대경권기업성장지원센터(센터장 김사홍)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행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다양한 창의 발명품이 선보였다. 대외 수상 작품 2팀을 비롯해 기업연계 캡스톤 43개, 일반 210개, 융합형 8개, 창업동아리 30개 등 총 293개 팀의 작품이 전시됐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작품 23건은 현장에서 15개 기업과 '학생작품 기술사업화 MOU'를 체결했다. 행사 기간 동안 금오공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kit Engineering Fair 2016'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지역 기업체 및 관계자, 지역 학생 등 3천2백여 명이 참여했다.

금오공대는 대경권기업성장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작품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이버 옥션' 운영으로 아이디어 제품의 사업화를 구체화 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시제품 제작비 지원과 번리사 투입을 통해 특허 출원이 가능한 작품을 발굴, 학생 창의 작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인턴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금오공대 주관,
지역 4개 대학 참여
우수 R&D 인력 양성, 채용
연계형 현장실습 확산

‘2016 대경권 중소·중견기업 R&D산업인턴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12월 14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현장실습지원센터(센터장 정연구)가 주관하고, 지역 3개 대학(대구대, 대구대, 영남대)이 참여하는 R&D산업인턴지원사업 보고회에는 참여 학생 및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R&D산업인턴지원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원장 이재훈),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진한)가 참여하며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R&D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학업 성적이 뛰어난 공과대 학생을 산업인턴으로 선발하여 6개월 동안 기업 니즈에 적합한 우수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2차년도 성과보고회는 30개 기업에서 55명의 산업 인턴들이 6개월 간의 장기현장실습을 수행한 성과를 점검하고 산업인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금오공대를 비롯한 4개 대학 학생들은 학교에서 익힌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소감을 비롯해 기업 애로기술 해결과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발표하여 참석한 학생 및 기업체 관계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정연구 대구경북권 R&D산업인턴지원사업단장(금오공대 환경공학과 교수)은 “R&D산업인턴지원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인력 양성을 통해 취업역량을 향상함과 동시에 취업과 연계되는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인턴지원사업의 좋은 성과모델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오공과대학교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진한)가 ‘제4회 G-Star 대학생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G-Star 대학생 창업경진대회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확산시키며, 혁신적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이다. 경북지역 19개 대학 학생들은 대회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녹아있는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도전과 패기를 발산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경진대회 대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은 위덕대학교 LC팀(조금규, 김성민, 정다희, 천혜정) 학생들이 발표한 작품이 선정됐다. 이들은 소변의 역류방지 트랩기술을 적용한 유린 백(소변주머니) 개발로 요로감염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받았다.

경진대회에 참여한 금오공대 박민규(전자공학부·3년) 학생은 “그동안 연구해 오던 창업 아이템 개발에 대해 폭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참가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제4회 G-Star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열려



금오공대·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주최
미래 청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
돋보여

2016 산학협력 성과 보고회 개최



기업 애로기술 및 혁신 기술 개발
지원 ‘결실’
지역 산업 발전 기여 기대

지역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과 혁신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2016 산학협력성과 보고회’가 11월 29일 개최했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창업진흥센터(공동 센터장 최성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영식 금오공대 총장과 김태욱 산학연경북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해 금오공대 가족회사와 지역 산업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1995년부터 시작해 올해 22회를 맞이한 성과 보고회는 올해도 다양한 기술이 전시됐다. 금오공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일반형산학협력기술 개발 23건, 자율형 산학협력기술개발 14건,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6건, 중소기업 공정개선지원사업 1건 등 총 67건의 연구개발(R&D)수행사업과 지역주력산업육성(비R&D)기업지원 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116건의 비R&D지원사업을 지난 1년여 간 시행했다. 또한 32건의 특허를 창출하고, CEO역량강화교육 등의 성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디오시스(대표 이승현)를 비롯한 61개 업체에 참여 인증 및 산학협력 현판을 수여하며, 산학협력에 기여한 기업체와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금오공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등 다수의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총 70개 과제에 약 5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비나 과제 규모면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다.

제2회 메카트로닉스 콘서트 성황리에 열려



융합형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단장 신동원)과 기계시스템공학과(학과장 김기만)은 11월 21일 대학 테크노관 1층에서 제2회 메카트로닉스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특성화 사업의 성과발표와 전시를 통해 사업효과를 증대하고, 우수 프로그램 사례 및 우수 작품 시상을 통해 전공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총 42개 학생팀들이 사업단의 후원으로 설계한 작품을 전시했으며, 해외 우수대학 체험과 국내 경진대회에 참가한 우수사례들이 발표되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외부 기업체들이 참가하여 학부생들의 설계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계기가 됐으며, 참관한 산업체 관계자와 학생 간 기술 및 인적 교류, 취업 및 창업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됐다.

융합형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은 그동안 미국 조지아공대 연구실 인턴 제도를 통해 5주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공 및 어학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또 공학 S/W집중강좌를 통해 공학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지원 결과 현대HL에서 주관하는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6회 국제산업 IT융합기술 워크숍 개최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공동 주관
“IoT·ICT산업 관련 교류의 장”

‘제6회 국제산업 IT 융합기술 워크숍(WIITC: International Workshop on Industrial IT Convergence)’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이틀간 김천시에 위치한 산학연유치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동성)와 스마트디바이스 산업협회(회장 장창덕) 주관으로 열렸다.

워크숍에는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및 kit융합기술원, 경상북도와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종자원 등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국내·외 ICT와 사물인터넷(IoT) 관련 연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류의 장을 형성했다.

워크숍은 ‘ICT융합 산업 육성 전략’을 시작으로 다양한 세션 발표로 이루어졌다.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참여한 발표자들은 세션발표를 통해 ICT 관련 융·복합과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논의를 활발히 진행했다. 또한 50여 편의 논문과 40여 편의 포스터논문도 함께 전시됐다.



김동성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은 “WIITC가 국내·외 ICT 관련 기술의 국내·외 경향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IoT·ICT산업과 관련된 교류의 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5차 LINC사업성과 보고회’ 개최



‘지역 기업 동반성장’ 발전 모색
가족기업, 협력 기관에 표창 수여

LINC사업 5차년도 사업성과 보고회가 지난해 12월 6일, 구미 센츨리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권기웅)의 구미거점단지 성과 보고회와 함께 열린 이번 LINC사업성과 보고회에는 지역 산업체 임·직원 및 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금오공대 LINC사업단(단장 채석)은 이번 ‘2016 사업성과 보고’를 통해 LINC사업 확산과 산업체 참여율을 제고하고, 학생 취업 및 현장실습 연계를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내용을 밝혔다. 이어 (주)우성파워텍, 수엔지니어링, (주)샘테크, 지디피, 에스케이테크, 육일전자산업 등 6개 가족회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총장 표창 수여하며, 자긍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석 LINC사업단장은 “가족기업과 함께하는 협력 활동은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의 표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학협력이 우수한 대학,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지역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오공대는 참사람, 든사람, 난사람, 큰사람이라는 인재양성 정책을 바탕으로, LINC사업 시행 학교로 지정된 이후, 2015 동아일보 기업관점 산학협력 최우수 평가를 비롯해 교육부 LINC 사업 연차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금오공대-日 도호쿠 대학,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일본 우수대학과 공동 심포지엄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 학술 교류

금오공과대학교가 일본 국립 종합대학인 도호쿠(Tohoku)대학과 메카트로닉스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Mechatronics)을 공동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센다이시에 위치한 도호쿠대학에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금오공대 융합형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단장 신동원) 소속 교수 및 학생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연구발표를 비롯해 다양한 학술정보를 교류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융합형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 소속 학생들이 미국 캔 위성 대회(ARLISS 2016)에서 수상한 우수기술상(Technology Award)과 관련된 발표가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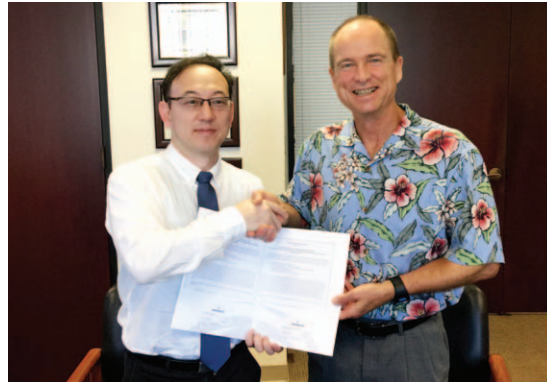
국제 심포지엄을 주관한 권현규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2회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학술 및 인적교류의 장이 확립되기 시작했다”며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교가 공동으로 금오공대에서 개최한 제1회 국제 심포지엄에는 대구대, 창원대, 도호쿠대학, 도쿄수도대학(Tokyo Metropolitan University)의 교직원 및 학생 60여명이 참석해 학술 교류를 가진 바 있다.

금오공대, 美 오션아이티와 MOU 체결

kit융합기술원 · ICT융합특성화 연구센터와 국제 공동연구 추진
스마트 기기, 민군 융복합 시스템 확대

금오공과대학교가 지난해 9월 미국 오션아이티(OceanIT · 회장 패트릭 K, 설리반:Patrick K. Sullivan)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 김동성 금오공대 kit융합기술원장
* 패트릭 K, 설리반(Patrick K. Sullivan)
오션아이티 회장

오션아이티 본사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인적교류 및 국제 공동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오공대 kit융합기술원(원장 김동성, ICT융합특성화 연구센터 겸무)과 협약을 체결한 오션아이티

는 미국 하와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연구 기업으로 민군 IT, 소재, 메디컬 등 민군 융합분야와 최첨단 통신 · ICT 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동성 금오공대 kit융합기술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및 국제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IoT 기반의 재해 경감기술과 스마트 기기의 민군 융복합 시스템 활용 등을 주제로 하는 민군 융 · 복합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 김동성 금오공대 kit융합기술원장
* 패트릭 K, 설리반(Patrick K. Sullivan) 오션아이티 회장
* 켄 나오이 설리반(Jan Naoe Sullivan) 오션아이티 사장

컨설팅 대학원, 中 LCD 전문 기업 ‘디시안’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
中 최초 국내 중소기업 기술 적용된 LCD패널 기술 자문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대학원이 중국 LCD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성 금오공대 컨설팅대학원장 일행은 지난해 10월 초 중국 마안산시에 위치한 LCD 전문기업 디시안(帝显电子, Dixian Electronic Co.)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자문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디시안은 중국 최초로 한국 기술이 적용된 15인치 LCD 모듈 및 터치패널 개발을 통해 연간 3,50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시안은 금오공대 컨설팅대학원의 기술 자문을 통해 중형

및 대형 패널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오공대는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의 일환으로 해외 인턴십을 추진하는 등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금오공대 컨설팅대학원은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컨설팅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 등을 마련해, 양국의 컨설팅 산업 및 교육 · 컨설팅 기술 발전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밑거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김 원장 일행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마안산 산업단지공단(Modern Industrial Part of Ma'an Shan Zhengpu Port New District)을 방문해 중국 산업 현황에 대한 조사를



좌측부터 * 김태성 금오공대 컨설팅원장
* 디시안 김용호 총경리

실시했다. 현장 조사에 함께 참여한 중국 마안산 산업단지공단 황시양(黃翔) 주임은 “이번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양국의 민간교육 협력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제품 제작 지원 통한 기술이전



링크사업단, 8개 과제 기술이전
협약 체결
링크사업 참여 활성화 및 취업
효과 기대

금오공대가 ‘시제품 제작(개발)지원 과제 기술이전 협약’을 지난해 11월 10일 금오공대 kit디자인스튜디오에서 가졌다.

금오공대 링크사업단(단장 채석) 주최로 열린 이번 협약은 그동안 금오공대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제품 제작 및 개발 지원에 대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협약식에는 금오공대 시제품 제작(개발) 책임교수들을 비롯해 위드시스템(주)(대표 김명준) 외 7개 기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금오공대 링크사업단은 그린에너지 및 IT융·복합 분야 관련 가족회사 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 국고 1천만 원 내(건당)에서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진행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기술이전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기술이전은 관련 산업의 가치 창출과 기술개발을 비롯해 산업체의 링크사업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술이전을 통해 학생 취업 및 현장실습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아몰레드(AMOLED) 패널 1대 4채널 검사기 시제품 제작’ 관련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 고재필 금오공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이번 시제품 제작 과제를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오공과대학교가 지난해 11월 24일 kit 디자인스튜디오에서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기술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장원테크 등 9개 가족회사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금오공대 가족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는 그린에너지 및 IT융복합 분야에서 9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8개 과제가 3천 8백만원의 정액기술료를 창출하며 협약을 체결했다.

박세혁 (주)장원테크 대표는 “산학공동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협약을 바탕으로 산업체는 기술력과 인재 확보라는 성과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오공대와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오공대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LINC사업이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그룹에 선정됐으며, 이번 5차 년도 사업은 지역산업과의 동반성장이 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학공동연구 통한 기술이전 성과 창출



지역기업과 8개 과제 기술이전
협약 체결
학생 취업 및 기술력 확보 ‘시너지 효과’

학생작품 기술이전 협약 체결



“학생-아이디어 작품 사업화”
대학-지역기업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학생 아이디어 작품 상품화를 위한 기술이전 협약식이 지난해 12월 19일 개최했다.

교내 kit디자인스튜디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학생 및 책임교수, 기업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총 13개 작품이 지역기업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으로 2천 4백만 원의 정액기술료와 2천 2백만 원의 경상기술료가 창출되는 효과를 거뒀다.

‘항균 나노섬유(Nano-Fiber) 정수시스템’ 작품으로 (주)아이티로그(대표 조화주)와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한 박진영(전자공학부 4년·24세) 학생 작품은 정액기술로 500만원에 연 1%의 로열티를 창출했다. 이 작품의 지도교수로 참여한 이용환 전자공학부 교수는 “학생 작품의 기술 이전은 대학과 지역기업이 협력해서 나타나는 긍정적 상호 시너지 효과로 볼 수 있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 생태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오공대는 ‘C-Idea 2016’에서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23개 학생 작품이 지역 15개 기업들과 현장에서 기술이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학생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금오공대 LINC 사업단은 연이은 기술이전 협약을 바탕으로 ▲ 산업체 LINC 사업 확산 및 참여율 제고 ▲ 가족 기업 기술개발 활동 지원 등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초청 특강



‘창조경제와 제3세대 기업가 육성’
주제
“창조 경제 확산으로 저성장 사회
극복” 강조

창업 및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특강이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금오공대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소장 최성대)가 주관하는 이번 특강에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강연에 나섰다.

‘창조경제와 제3세대 기업가 육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은 청년 실업과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 속에서 청년 기업가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주영섭 청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창조경제 시대 국가 성장전략과 제3세대 기업가 육성방향에 대해 강연을 가졌다.

주 청장은 “저성장 시대를 이겨내는 힘은 창조경제에 있다”며, “청년창업과 글로벌 벤처기업가 양성을 위해 창업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에 달려있다”며 도전정신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주영섭 청장은 GE 써모메트릭스테크놀로지스(주) 대표이사, (주)본텍 대표이사, (주)현대오토넷 대표이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 주력사업총괄 MD를 거쳐 제14대 중소기업청장에 취임했다.

‘제31회 kit+ 산학연관 포럼’ 개최



이헌곤 국방기술품질원장 특강
“방위산업과 국방 품질 경영 발전방향 논의”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초청 강연



“제4차 산업혁명, 미래의 기회...”
주제 특강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BK21+스마트IoT창의인재사업
단 주관

제31회 kit+ 산학연관 포럼이 지난해 9월 7일, 금오공대 청운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이헌곤 국방기술품질원장을 초청해 ‘방위산업과 군수품 품질경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식 금오공대 총장과 김종권 구미부시장, 이흥희 경북도의원 등 지역 단체장 및 지자체, 경제인 8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의 비전과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헌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방위 산업의 특징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작으로 국방품질 경영의 발전 방향을 논하는 것으로 강연을 마무리 했다. 이 원장은 “방위산업은 기술 집약적인 복합체계와 자본 집약적인 장치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군수 분야에 접목하는 동시에 군수 기술을 민간에 활용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간-군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오공과대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래 지식산업을 선도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 초청 강연을 지난해 11월 1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제4차 산업혁명,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미래 산업의 방향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정 교수는 강연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제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토론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동성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은 “창의인재양성에 있어 학생들이 미래 산업 전망을 이해하고 창의적 역량을 제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융복합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는 BK+2 1스마트IoT창의인재사업단 및 kit융합기술원, 금오공대 IT융복합학과 등과 함께 비정기적인 국내외 특별 초청 강연을 비롯해 매주 1회 융복합창의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사랑의 김장’ 전달

대학 구성원 정성 담은 500포기 김치
지역 사회복지시설 통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



금오공과대학교가 연말을 맞아 올해도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금오공대는 12월 2일 오전 지역의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 스님)과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숙희)을 방문해 대학 구성원들이 전달 직접 담근 500여 포기의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금오공대가 연말이면 나눔 문화와 사회공동체 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대학에서 직접 준비한 재료로 구성원들이 모여 직접 만든 김장은 매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방대석 학생처장은 “그동안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문화공연 개최, 성금 전달, 도서 기증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며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을 통해서도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나눔 실천 앞장

kit홍보대사, 사회 복지관 방문 및 봉사활동
대학 축제기간에 성금 모금해 전달

금오공과대학교 kit홍보대사 학생 일동은 지난 11월 17일 지역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대학 축제기간 동안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구미시 도량동에 소재한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유은애 kit홍보대사 팀장(신소재공학부·3년)은 “축제기간 중에 성금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하게 됐다”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휘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은 “금오공대의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 소통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대학과 구성원이 지역을 사랑하는 소중함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kit홍보대사 학생들은 지난해 7월에도 금오공대 총동창회(회장 금시덕)와 함께 70만원의 성금을 지역 사회 복지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금오공대는 2014년부터 지역 사회복지관 및 사회적 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도서 및 책장 기증, 후원 물품을 전달,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림의 미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들의 만남
이 캠퍼스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길 기대 한
다”고 말했다.

그룹 ‘거북이걸음’은 나이와 장르를 불문한 25
인의 작가 모임으로 회화, 사진, 조형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현대 미술의 여러 방편을 제시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예술의 전
당, 검재 정선 미술관 등 국내·외 갤러리와 미
술관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고 있다.



금오공대 ‘현대미술작가 단체展’ 개최

그룹 ‘거북이걸음’ 소속 19인, 작품 40여점 선봬
“느림의 미학으로 바라본 세상, 화폭에 담아...”

금오공과대학교 갤러리가 다양한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단체전에는 현대미술작가
그룹 ‘거북이걸음(회장 강태
웅)’에서 활동 중인 강태웅, 김
인옥, 이애리, 주랑 작가 등을
비롯한 19인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됐다.

지난해 10월 7일 열린 오프닝에서 강태웅 작가
는 “젊음의 날개로 힘차게 비상하는 금오공대
캠퍼스에서 거북이들의 작품을 펼칠 수 있어 기
쁘다”며,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공학도들과 느

kit 갤러리아
운영시간 안내

정기휴관
(일요일, 월요일)
일을 제외하고
10시~18시까지
운영된다.

문의
☎054-478-7047

금오공대 갤러리는 그동안 다양한 기획전과 초
대전을 통해 대학 캠퍼스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
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금오공대 학생회
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금오공대 kit 갤러리, ‘김석영 초대展’ 개최

‘빛의 시간’ 주제, 금속공예 작품 전시
작가 내면의 성찰과 이상 표현

금오공과대학교는 kit갤러리 11월 전시회로 ‘김석영 초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초대전은 ‘빛의 시간’을 주제로 ‘그릇’과 ‘빛’이라는 두 가지 테마의 금속공예 작품 20여 점이 전시됐다.

김석영 작가는 “금속공예는 조형작업의 분야에서도 가장 많은 도구와 재료, 기법을 다루는 영역”이라며, “창작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자아 성찰과 이상에 대해 관객과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석영 작가는 중앙대 공예학과 및 대학원을 거쳐 독일 국립 뉘른베르크 예술대학 금은공예과를 졸업했다. 개인전과 국내·외 단체전 50여회 등 다수의 전시회를 열었으며, 익산 한국공예대전 대상 2회, 대한민국디자인 전람회 국무총리상,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 대상, 대한민국 문화상품대전 금상 등의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연번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업종
1	거제복집	김영자	054)462-0096	경북 구미시 신시로16길 49	한식 (복어)
2	공대상가	황태진	010-6603-3007	경북 구미시 대학로 39	상가
3	금오산성숯불갈비	윤숙자	054)457-7500	경북 구미시 산업로 224	한식
4	금오산한우마을	김현숙	054)473-8688	경북 구미시 옥계남로 7-5	한식
5	동구미자동차정비	전기준	054)476-3300	경북 구미시 거양길 242	차량 정비
6	미쉐린 타이어 서비스센터	김창일	054)462-9012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345	타이어
7	베스트 샵 (옥계점)	황원재	054)474-8877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4길 49번지	LG 가전
8	본도시락 옥계점	박희열	054)474-4285	경북 구미시 옥계북로 74	한식
9	삼성특판	장세광	054)464-4141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271	가전
10	성피부과	성준제	054)455-3393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44멀티복합상가	의료
11	신동아 인쇄기획	김진순	054)464-3500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32길 5-2	제본 인쇄
12	에코숨	석주윤	054)471-4491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대 벤처창업관 204-1호	제조
13	원조쌈밥	윤정이	054)441-1851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20길 4	한식
14	타이어백화점	김창일	054)465-8008	경북 구미시 왕산로 220	타이어
15	포항가자미회	이정태	054)451-3433	경북 구미시 신시로16길 97	일식 (회)
16	하나투어 옥계점 (새구미투어)	정성운	054)472-5900	경북 구미시 호대로31길6 2층 (카페드롭탑 매장)	여행사
17	한려수도	이갑선	054)457-6900	경북 구미시 형곡서로 121	일식 (회)
18	한우명가 육림촌	조정운	054)474-3030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982	한식
19	(주)해피투게더투어	이태식	010-8923-9863	경북 구미시 야은로 455 삼성빌딩 3층	여행사
20	황강장어	김선미	054)455-4783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43길 15	한식 (장어)

※ (재)금오공과대학교발전기금을 후원해 주시는 업체 및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오공대와 함께하는

LOVE

01 금오기전(주), 발전기금 1천만 원 전달

강병춘 대표, 제어전공 81학번 동문

금오공과대학교가 금오기전(주)으로부터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금오공대 제어전공 81학번 동문인 강병춘 금오기전(주) 대표이사는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모교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며, “기부한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작은 발판이 되어 훌륭한 인재로 자라는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1995년 설립한 금오기전(주)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육상 및 해상용 중·대형 디젤엔진과 발전설비 등에 필요한 감시 장비류 컨트롤러, 컨트롤 패널 등을 설계 및 제작하여 국내 조선소 및 엔진 제작사에 공급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량기술기업(1997)과 부산·울산지역의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2002) 등으로 선정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15 중소기업 품질 혁신 전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02 베스트자동화, 발전기금 1,200만 원 금오공대 전달

김도완 대표, 지능기계 석사과정 졸업 동문
“훌륭한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하길”

금오공과대학교가 지역중소기업인 베스트자동화(대표 김도완)로부터 발전기금 1,200만원을 전달받았다. 금오공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도완 베스트자동화 대표, 최성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금오공대 지능기계 석사과정 동문인 김도완 대표는 “동문으로서 후배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00년 9월 설립한 베스트자동화는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LCD 모니터, 항공기 부품 관련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제작 업체로, 국내는 물론 멕시코와 폴란드 등 해외로도 지속적인 수출을 진행 중이다.

03 지역 미니클러스터, 금오공대 장학금 전달

IT장비 및 3D프린팅 미니클러스터 500만 원 기탁
“대학과 지역 기업의 상생 노력”

금오공과대학교가 지역 미니클러스터로부터 장학금 500만원을 받았다.

구미지역의 IT장비 미니클러스터(회장 도상인)와 3D프린팅 미니클러스터(회장 금병철)는 금오공대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오공대 본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상인 IT장비 미니클러스터회장과 금병철 3D프린팅 미니클러스터 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도상인 IT장비 미니클러스터회장은 “금오공대가 지역과 동반성장 하며,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장학금 기탁의 뜻을 밝혔다. 금병철 회장도 “창의인재 양성은 곧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며,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04 ‘동문·기업’ 발전기금 2천만 원 전달 받아

석·박사원우회 및 원종욱 회장 1천만 원 (주)대경테크노 박현근 대표 1천만 원 기부

금오공과대학교는 12월 17일 금오공대 석·박사원우회와 동문 기업인으로부터 발전기금 2천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원종욱 금오공대 석·박사원우회 회장, 박현근 (주)대경테크노 대표 등 동문 및 기업 등이 자리해 대학 발전을 위한 모금에 동참했다.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년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는 석·박사원우회(회장 원종욱)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원종욱 석·박사원우회장은 500만원을 장학금으로 별도로 기증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한 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특히, 동문기업인인 박현근 (주)대경테크노 대표는 2013년부터 총 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든든한 후원자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종욱 석·박사원우회장은 “금오공대가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원하며, 선배들의 작은 보탬이 후배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현근 (주)대경테크노 대표는 “금오공대와의 인연이 기업과 스스로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박사원우회는 이날 발전기금 전달에 이어 대학 학생식당에서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하며 후배들을 위한 특별한 사랑을 실천했다. 석·박사원우회는 지난해에도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무료급식을 실시한 바 있다.



학술 연구 기금	학술 연구 지원, 국제 학술 교류 지원, 교수 해외 파견 지원, 공동 연구지원, 저명 교수 초청 지원,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실현
도서관 기금	대학 도서관의 국내외 학술 도서의 구입과 각종 문헌의 확보 및 도서 관리의 전산화를 기하여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장학 기금	우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현
외국인장학기금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연구기자재기금	첨단 과학과 기초 과학의 연구 및 교수에 필수적인 최신 연구 기자재를 확충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현
시설 확충 기금	교육 및 연구 시설과 후생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충실히 확보하여 보다 안락한 교육 여건을 조성
대학 문화 기금	학생들의 대학 문화 활동에 편의를 도모
대학에 일임	금오공대 우선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금오공대에 위임
기타	기부자가 희망하는 경비 등

※ 현금 이외의 현물(주식, 부동산, 소장품 등) 기부 시 기획협력처(054-478-7080)으로 연락주시면 기부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 인 기 부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의 100%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법 인 기 부 (주식회사, 법인단체)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
(단, 2009년부터는 연간소득금액의 50%)

상속재산기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함)



kit 금오공과대학교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약 장 자	기부자명 □ 익명희망	주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물 수령주소	(우 -)			연 락 처	자택 H/P	
	동문	□ 학부(과) _	□ 대학원 _	□ 최경과정 (제 기)			
	기업체	회사명 _	대표자 _				
	학부모	학생성명 _	학부(과) _				
구 분	교직원						
	약정금액	금	원 (W)	추 천	□ 교수	□ 직원	□ 기타
	참 여 방 법	□ 직접납부 농협은행 785-01-037878 대구은행 504-10-103390-1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 CMS 자동이체 □ 급여이체 (교직원에 한함, 동의서 작성)					
		예금주	(인/서명)		거래 은행		
계좌번호				이체일	1일	15일	
납입기간		금	원씩(회) (년 월 ~ 년 월까지)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동의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위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④ 서명					
기부금종류	□ 현금	□ 유가증권	□ 부동산	□ 기타			
기부금용도	□ 대학사랑기금 □ 장학기금 □ 지정장학기금(학과명:) □ 대학문화기금 □ 시설확충기금 □ 도서기금 □ 학술연구기금 □ 연구기자재확충기금 □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동동의서	본인은 (제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을 약정하고 기부함에 있어 기부금 입금 처리 및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자 관리를 위해 성명, 주인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 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발전기금 기부자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부금 입금 처리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자 관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성명, 주인등록번호, 근무처, 전화번호, 이메일, 기부내역)등 기부자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④ 서명

자세한 사항은 금오공과대학교 발전후원회(T.054-478-7080, F.054-478-7081)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KIT의 밤야경 (2016사진공모전 우수상/ 서종립)

보내는 사람

주소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7. 1. 1~2018. 12. 31

구미우체국
제40111호

받는 사람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발전기금 담당자 귀중

39177

♥ 발전기금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 별	모 금 액
2016. 9. 1. ~ 2016. 12. 31.	465, 111천원

기탁하신 분 (2016. 9. 1. ~ 2016. 12. 31.)

5백만원 이상

주광정밀(주)	대표 윤재호
(주)대경테크노	대표 박현근
(주)보원	부사장 이충노
(주)태우건설	대표 박해주
곽호상	교원(기계시스템공학과)
금오공대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금오기전(주)	대표 강병춘
금상	대표 원종욱
(주)아이엔티텍	대표 정진형

1백만원 이상

(재)삼성복지재단	
(주)대송	대표 박중하
(주)디에이비피	대표 김경민
(주)KT & G구미지점	
금성테크(주)	대표 김태정
김귀곤	교원(경영학과)
최경과정총장배골프대회 일동	
김중필	직원(사무국)
김택수	동문(대학원기계설계공학과 '07)
고분자공학과동문회 일동	
두산연강재단	
금오공대 구미시청 동문회	
IT장비3D미클	박성진
박제철	교원(화학소재융합학부)
배진현	동문(대학원산업공학과 '15)
배효근	직원(사무국)
베스트자동차	대표 김도완
삼경정밀	대표 김태검
손창식	직원(도서관)
신아하이텍	대표 장명수
안혜경	개인
여현동	동문(대학원산업공학과 '15)
이웅희	동문(대학원산업공학과 '03)
이환구	동문(대학원산업공학과 '16)
이효식	동문(대학원산업공학과 '14)
3D프린팅미클	임찬호
정영관	교원(기계공학과)
정원중	직원(금오공과대학교)
조성환	동문(대학원테크노경영학과 '07)
최명익	동문(고분자공학과 '90)
특허법인 신태양	대표 이선택
홍성욱	교원(기계시스템공학과)
황정주	교원(기계시스템공학과)

50만원 이상

경영학석박사원우회 일동	
수성 F.I	대표 김경미
신동아인쇄기획	대표 김진순
미세린 경북서비스센터	대표 김창일
박동호	동문(대학원 테크노경영학과 '15)
백호진	학부모(전자공학부 '14 백민경)

50만원 미만

(주)에코슈	대표 석주운
(주)해피투게더투어	대표 이태식
거제북집	대표 김영자
고재필	동문(대학원테크노경영학과 '15)
권승운	직원(기획협력처)
금오산한우마을	대표 김현숙
김국조	직원(정보전산원)
김도형	동문(환경공학전공 '98)
김동성	교원(전자공학부)
김문욱	직원(사무국시설과)
김신우	동문(응용수학과 '10)
김용원	직원(응용수학과)
김지예	동문(신소재공학부 '14)
김창동	동문(대학원테크노경영학과 '14)
나윤미	직원(교무처)
남미옥	동문(대학원테크노경영학과 '15)
남상규	직원(사무국인사팀)
노우솔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2)
데이터콤	대표 강전학
박무진	동문(대학원테크노경영학과 '15)
박혜란	동문(광시스템공학과 '13)
방대석	교원(화학소재융합학부)
배호균	동문(소프트웨어공학전공 '03)
베스트삼 옥계점	대표 황원재
본도시락 옥계점	대표 박희열
손주영	동문(대학원테크노경영학과 '14)
송예지	동문(신소재공학부 '14)
신나라	동문(디자인공학전공 '13)
심민섭	동문(산업경영학과 '96)
안태욱	동문(컴퓨터공학과 '94)
육림춘	대표 조정은
윤봉길	직원(기획협력처)
윤정이원조썸밥	대표 윤정이

50만원 미만

이명열	동문(기계공학과 '12)
이상기	동문(대학원테크노경영학과 '15)
이상희	동문(신소재공학부 '12)
이영순	교원(전자공학부)
전민호	동문(산업공학과 '11)
정재훈	직원(기획협력처)
조규섭	동문(산업공학과 '11)
지무섭	동문(대학원테크노경영학과 '14)
진종영	동문(산업경영학과 '96)
최성희	동문(신소재공학과 '15)
최준혁	동문(시스템공학과 '12)
최현주	학부모(메디컬IT융합공학과 '12윤지호)
포항가자미회	대표 이정태
하나투어 옥계점	대표 정성운
한상규	직원(입학관리본부)
한희중	직원(사무국)
허남연	동문(대학원테크노경영학과 '15)
허수경	동문(디자인공학전공 '13)
김경아	구미시민
김은애	구미시민
김재우	구미시민
김정우	구미시민
류태은	구미시민
신창훈	구미시민
윤원상	구미시민
윤종언	구미시민
이영환	구미시민
이재현	구미시민
정하섭	구미시민
최윤정	구미시민
홍성란	구미시민
황현우	구미시민

